

서천,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도전하다

한상욱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아림국(兒林國), 서천읍성, 서천읍으로의 발전

서천읍이 지역주민의 삶의 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청동기시대. 현재의 서천읍 남산리, 삼산리 일대에 마을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에 삼한시대의 마한 54국의 하나인 아림국(兒林國) 이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서천에 대한 명칭은 백제의 설림군(舌林郡), 통일신라의 서림군(西林郡), 고려시대의 서림현(西林縣)과 지서주사(知西州事)에 이어 조선 태종 13년(1413)에 서천(舒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서천읍이 지금과 같은 모습살이를 취하게 된 것은 조선초에 새롭게 읍성을 건축하면서 그 기틀을 마련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해안 및 국경지역 그리고 내륙의 주요 도로변 읍들의 읍성 보유비율이 높았다. 이중 특히 왜구의 피해가 컸던 해안지역은 방어시설의 정비에 노력을 기울인 점으로 보아 조선초에 새롭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흔적들은 다음과 같은 “세종실록지리지”¹⁾나 “신증 동국여지승람”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서천읍성과 고읍, 그리고 영취산과 운은산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아마도 삼한시대 이래 서천은 남산에 있었고, 조선 초 세종에 이르러 조금 더 지형이 완만하고 입지적으로 편리한 지금의 서천읍 자리로 터를 옮긴 것이다.

서천군에는 도시적 면모를 갖춘 모습살이 터가 장항읍과 서천읍 등 2개 읍이 있다. 서천군의 군청소재지는 서천읍이지만, 도시의 확장면에서 보면 서천읍보다는 장항읍이 한발 앞서 발전하

1)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서천군조에 읍석성(邑石城)이 운은산(雲銀山) 아래 있으며 성의 둘레길이가 160보4척이라 기술하고 있다.

2)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의 둘레길이를 3,525척 높이 10척이라 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읍석성과는 다른 성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같은 “신증 동국여지승람” 서천의 고적조에 고읍성(古邑城)이 보이는데 영취산 산마루에 있고 돌로 쌓은 성의 둘레길이가 1,545척이며 세종 때에 그 지대가 외지고 막혀있어 지금의 읍터로 옮겼고 그 아래에는 또 고읍의 기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

게 된다. 장항읍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미국 수탈의 현장으로써 1928년 장항항 매립, 1931년 장항선 개통, 1937년 장항항 완성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급속하게 확장한 도시이다. 이에 따라 1938년에는 장항읍으로 승격하게 된다. 1938년에 읍으로 승격된 도시가 현재의 광주광역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의 발전 속도를 짐작케 한다.

일제강점기의 서천읍도 장항선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도시 골격을 갖추게 되는 데, 1930년대 시가지의 동쪽 끝에 서천역이 들어서면서 서천역과 현재의 군청사를 잇는 중심가로는 형성되고, 이러한 가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됨으로써 도시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서천읍의 도시공간구조는 읍성과 외곽의 이원적인 구조에서 근대기의 육상교통의 발달에 따른 도시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육상교통의 발달은 1980년대의 도시 확장과 90년대의 신시가지 개발로 이어지면서 서천의 시가지가 서쪽으로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현재의 서천읍 도시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1〉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서천읍성, 고읍성, 남산과 운운산

서천읍의 현황 및 여건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단에 위치하여 있고 동쪽으로는 부여군, 북쪽으로는 보령시, 남쪽으로는 금강에 접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측은 황해에 임하여 있다.

서천읍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북고남저형으로, 서천읍의 북측은 야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남·서측은 평탄한 지형의 평야지대로서 야산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서천읍의 총면적은 27.72km²로서 서천군 면적의 7.75%에 해당하며 군내의 읍·면들 중 중간 정도의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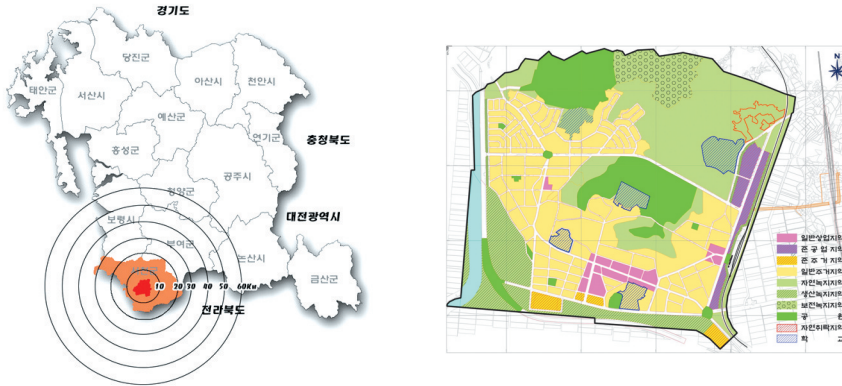
인구는 서천군의 총인구는 60,667명이며 서천읍은 13,396명으로 서천군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서천군의 인구는 매년 2.5~3.5%씩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천읍의 인구는 0.7%내외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동추이는 서천군 내 주변 면지역으로부터 서천읍으로의 인구 이동에 기인하며, 서천읍 사곡리와 군사리에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항읍과의 인구 감소를 비교해보면 장항읍의 인구(13,934명)가 급속하게 줄고 있고, 서천읍의 인구(13,396명) 또한 완만하게나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항읍보다 서천읍의 인구 감소추세가 완만한 이유는 서천읍은 군내에서 지리적으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도와 지방도가 서천을 지나고 있어 군내에서 지리적인 중심지로서 교육 및 1차 구매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구특성상 서천읍내의 학생수는 인구비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20~40대 거주비가 높기 때문이며, 고등학교 학생비율이 높은 것은 군내의 유일한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가 서천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서천읍 전경



〈그림 3〉 서천읍 위치도 및 용도지역도

서천읍을 둘러싼 여건변화들

광역교통망 건설에 따른 서천읍의 생활권 위축 예상

서천군은 충청남도의 시·군보다는 전라북도 군산과의 생활권 교류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육상교통 특히, 광역교통망의 새로운 건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거리는 그대로지만, 이동속도의 증가에 따른 시간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생활권의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현상은 고차산업으로 갈수록 심각하며, 고차서비스업의 경우 역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천읍에는 장항선 복선 직선화 공사가 진행중이며, 신철도는 장항이 종착역이 아닌 장항, 군산을 거쳐 익산에 연결되는 등 호남선과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2004년 KTX의 개통으로 서울행의 경우 익산역에서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2시간 남짓 소요), 향후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시 1시간 30분 정도로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읍 내부적으로는 기존 시가지의 동측에 위치해있던 서천역의 기능은 서천읍 동부로 이전하여 신역사가 건축되면 기존 서천역 주변의 공동화와 신철도역사 주변의 새로운 상권형성이

기존시가지의 침체된 상권을 더욱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교통망중에 자동차 교통 역시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 신군장대교의 건설로 인하여 군산으로의 잠식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산과의 신군장대교의 건설은 서천읍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신군장대교 건설이 제기되었을 당시 서천군은 해안을 매립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호안도로(국도77호선)와 군산과의 연결을 주장하였지만, 현재는 내륙산업단지 조성 및 정부대안사업의 추진으로 그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군장 광역권계획에서는 군산과 장항의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금강하구둑과 장항의 서측 송림리에서 군산 해상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기존 시가지의 외곽을 연계하였지만, 신군장대교의 건설은 기존 시가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중심축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추진될 경우, 국도 4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군산과 서천, 장항읍과 서천읍이 연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신군장대교의 건설은 군산과의 공간거리 뿐만 아니라 시간거리까지 압축시켜 지금보다 더욱 동일 생활권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발돋움의 전기 마련

서천군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정부대안사업(이하 ‘대안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안사업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리고 내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13년까지 약 4,090천㎡의 부지에 10,3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대안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투자비로 볼 때, 서천군 1년 예산의 3배 남짓하며, 면적으로는 서천군내에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맞먹는 크기가 된다. 주요시설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쌀농사 위주의 농촌지역에서 생태·연구·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대안사업의 추진은 서천읍 입장에서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동시에 마치게 될 수 있다. 즉, 서천군 전체에 있어서 21세기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복합산업단지의 개발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정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도시의 조성에 따른 공간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도한 도시 용지의 공급은 군내 도시기능의 중복으로 인하여 자립도가 낮고 영세한 특성을 갖는 도시기능의

유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병행하여 추진되지 않을 시에는 서천읍의 도심공동화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정부대안사업 개요

구분	계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장항국가 산업단지
위치	서천읍으로부터 10km 이내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덕암리, 도삼리, 신포 리, 장선리 일원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화천리, 송림리 일원	서천군 장항읍 및 마서면 일원
면적	4,090천㎡	대지면적 : 998천㎡ 건축연면적 : 43천㎡	대지면적 : 33만㎡ 건축연면적 : 37천㎡	2,762천㎡
사업비	10,300억원	3,400억원	1,213억원	5,687억원
사업 기간	2007-2013	2007-2011	2007-2012	2008-2013
주요시설 및 유치업종	연구, 전시, 산업시설	미래환경연구센터, 실 내생태관, 멸종위기동 식물관, 에코과학교육 센터, 방문자센터	수장·연구동, 교육· 전시동, 배양동, 강당, 세미나실, 게스트하우스	생명과학기술, 청정지 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산업



〈그림 4〉 서천읍 주변지역 개발사업 위치도

70 | 열린충남

엇을 요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할 시기인 듯하다.

광역교통망의 건설에 따른 생활권의 역외유출현상 심화, 대규모의 관광 및 산업기능 건설에 의한 서천읍내로의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들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노력들은 서천읍의 외적요인일 뿐이므로, 내부적으로 서천읍이 나아갈 수 있는 내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자구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서천읍은 사람과 재물이 모여서 잉여생산을 도모하는 도시의 속성에 비춰 봤을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중심상점가의 활성화가 그 한 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로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및 상업서비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서천특화시장, 후적지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구 서천역을 집적장소로 하는 공간 기능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각각의 공간을 매개하고 연계를 도모해야 하는 측면에서, 주민들 삶의 쉼터로서 커뮤니티 공간의 적극적인 도입과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서천읍 주변사업의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생태도시로서 서천읍의 도시상을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천군 자체적으로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교육·의료·문화·복지면에서 도시적 편리성을 누리며, 자동차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편적인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종합적·통합적 시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는 어떻게 하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현장에서 접목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서천읍은 이와 관련된 시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에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서천군, 서천통계연보, 각년도.
2. 서천군 홈페이지, www.seocheon.go.kr